

일본차 '3각 편대' 국내시장 공습



혼다 '어코드'



혼다 'CR-V'



도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국내 수입차시장에 '일본차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일본 자동차업체의 국내 진출이 잇따르면서 자동차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혼다와 닛산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요타가 한국 진출을 전격 선언하면서 향후 수입차시장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도요타 '캠리' 온다=4일 수입차업체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내년부터 중형세단 '캠리'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RAV4'를 한국에서 출시한다.

이는 지난 1974년 신진자동차(GM대우)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파기하고 철수한 지 34년 만에 '렉서스'라는 이름을 떼고 '도요타'라는 본명으로 다시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다.

도요타가 '캠리'의 국내 판매를 결정할 것은 경쟁사인 혼다가 중저가 모델 출시를 통해 한국차시장의 싹을 강자로 떠오른 것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일본업체의 점유율은 33.0%로, 독일업체(41.7%)에 이어 2위를 기록중이다. 특히 혼다는 일본차 가운데 40.3%를 차지함으로써 렉서스(42.6%)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일본차 '3각 편대' 국내시장서 각축=일본 닛산도 오는 10월 중형세단인 '알티마'와 SUV인 '로그'와 '무라노' 등을 한국시장에 내놓는다.

이로써 도요타와 닛산은 '어코드'와 'CR-V'를 통해 이미 한국 수입차시장에서 선두에 올라선 혼다와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캠리'의 한국 진출은 향후 국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캠리'는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

도요타 중형세단 캠리 출시 결정 닛산도 10월중 알타마 로그 출시 수입차 판매 1위 혼다 수성 총력

서 GM이나 포드 등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캠리'는 도요타의 대표적인 패밀리세단이다. 1980년 후륜구동 '셀리카 캠리'가 출시된 뒤 1982년 미국시장에 진출했으며, 2002년 이후 6년 연속 패밀리세단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다.

◇혼다 실용성 무장..시장 수성 '시력'=혼다는 올 들어 2월까지 총 1천725대를 판매해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50대)에 비해 판매량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기존 일본차의 '맹주'였던 렉서스는 혼다의 기세에 밀려 'ES 350'의 판매량이 지난해 수입차 부문 2위에서 최근 5위까지 내려앉았다. 지난해 5위였던 'LS250'은 10위권 내에도 들지 못했다.

이처럼 혼다가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품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심형 SUV인 'CR-V'의 가격은 3천90만~3천490만원, 스포츠 세단인 '어코드'는 3천490만~3천940만원으로 한국 중형차와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여기에 세련된 디자인과 탄탄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점도 시장 점유율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혼다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데다 '수입차=고가차'라는 공식을 깨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혼다 광주매장 7일 오픈

중흥동에 2천968㎡ 규모...어코드·CR-V 주력 판매

혼다코리아의 광주지역 공식 딜러인 '제이원모터스'는 7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에 전시장을 열고 판매 및 정비서비스를 시작한다.

혼다 광주 전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968㎡ 규모로, 승용차인 '어코드'와 SUV인 'CR-V'를 주력 차종으로 판매한다.

혼다는 '제이원모터스'의 광주 진출을 통해 본격적인 광주·전남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혼다는 현재 서울 '두산모터스', 부산 'D3모터스', 인천 '피존모터스' 등 전국 7개의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혼다는 중흥동 전시장 주변 500m내에 아우디와 BMW, 포드 등 유명 수입차 매장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혼다는 지난해 국내 진출 이후 6.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광주와 대구 등 지방시장 확대를 통해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혼다는 판매망 확대는 물론, 정비서비스 확충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혼다는 차량구입 후 주행거리 6만km 이내의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긴급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견인(50km까지 무상), 배터리 충전, 펌크 타이어 교환, 비상 급유(10ℓ 무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혼다의 광주 진출로 향후 광주에서는 총 13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경쟁을 펼치게 됐다. 현재 광주에는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등 12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북구 중흥동과 유동, 서구 화동동과 차평동 등 8곳의 전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제이원모터스' 관계자는 "최근 광주·전남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86 / 010-722-0100

010-5330-9999